STX, 에너지부문 이희범 회장 영입

산자부 장관 경험 · 노하우 활용 기대 ... 해외 에너지 · 자원 개발 총괄

STX는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을 에너지부문 총괄 회장으로 영입한다고 3월26일 발표했다.

이희범 회장은 STX그룹의 해외 에너지 · 자원 개발 사업을 총괄함으로써 발전, 오일 · 가스, 광물자원 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STX그룹은 2008년부터 극동아시아, 동남아시아, 유럽, 북미, 남미, 중동, 아프리카 등 7대 권역에서 해외 에너지 · 자원 개발 및 관련 플랜트 사업을 추진해 왔다.

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이희범 회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비롯해 중동 등 자원부국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에너지 · 자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강덕수 STX그룹 회장은 “이희범 회장의 합류로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고 있는 STX그룹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26>